

'98 부산소극장 연극페스티벌

제 21회 부산 무대예술제 연극공연

PUSAN
THEATRE
FESTIVAL

●기간: 1998.10.15(목) ~ 11.8(일)

- 주최 :  **부산광역시**,  **사단법인 한국예술 부산지회**
- 주관 :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 부산소극장협의회**
-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PSB 부산방송**,  **불교부산방송**,  **기독교부산방송**
 **釜山日報社**,  **국제신문**,  **부산매일**
사단법인 자갈치문화관광축제, 유림종합건설

* 본 공연은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극단
부두연극단

물고기의 축제

유미리·작 이성규·연출



일시

1998.10.24(토)~10.26(월)

평일/4시|30분, 7시30분

토·일/4시, 7시

장소

시민회관 소극당

연장공연

일시

1998.11.15(일)~11.29(일)

평일/7시|30분

토·일/4시, 7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연당 소극장



연출 이성규

THEATRE FESTIVAL
PUSAN

연출의 변

잔잔한 일상을 연극적 상징으로 빚어내는 大家로 우리는 안 톤 - 체홉을 떠올린다. 재일교포 "유미리"의 「물고기의 축제」는 체 흡과는 다르지만, 일상의 섬세한 부분이 놀라운 연극적 REALITY 를 획득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

그녀의 자전적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일견 매우 흔 란스럽게 삶의 고통을, 부조리를 펼쳐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역설의 힘으로 반전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네 장례식이 소외된 인간들을 큰 삶의 물결속으로, 용서와 화해의廣場으로 나아가게 하는 亂場이며 祝祭임을 다시 환기시켜 준다.

〈작품마다 다른 저마다의 독특한 형식찾기〉

〈삶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들여다보기〉 ...

『부두 연극단』의 상연목록에 「물고기의 축제」가 선정된 이유이지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내용으로 관객에게 가 닿을지... 열심히 할 뿐이다.

작품줄거리

뿔뿔히 흩어져 살던 가족들은 막내 기훈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노름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능함과 생계를 위해 밤이 되면 카바레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불륜으로 가정은 붕괴 되었고, 서로의 갈등과 소외속에서 수년간 가족 상호 간에 아무런 유대관계 없이 살아 왔다.

어색하게 모여든 가족들은 기훈의 일기를 통해 그의 죽음이 가족의 재회를 위한 계획적인 자살이였음을 알게 된다.

또한,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외되고 힘겨웠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가족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그리움의 반여적 정서였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기훈의 장례식은 그가 의도한대로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 화해하는 축제의 장이 된다.

아름다운 사회건설

부산
교차로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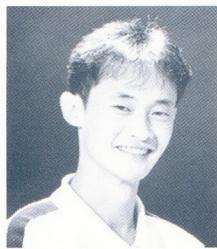
박정자 김 미 경



김윤석 최 재 민



김유리 손 경 하



김기태 하 현 관



김유미 최 수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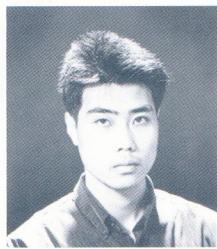
김기훈 오 세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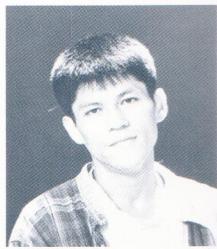
한수정 송 지 연



할머니 이 주 영



의심촌 천 세 현



오정달 류 영 운



장의사 장 영 섭



수박장수 박 상 민



조문객1 김 혜 숙



조문객2 류 란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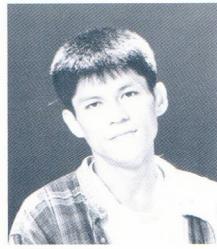


조문객3 신 은 하

STAFF



무대미술 권 재 연



기획·조연출 김 정 숙

무대감독·조명 류 영 운



무대장치 하 현 관



음악 이 반



소품 김 혜 숙



소품 신 은 하



분장 엄 지 영



진행 문 지 연

제10회

마산국제연극제



“New Vision and Challenge”

- 일 시 : 1998년 11월 5일(목)▶11월 13일(금) <9일간>
- 장 소 : 올림픽국민생활관 대극장(마산종합운동장 내)
◎ 공연시간: 매일 오후 7시(단, 11월 5일 공연은 오후 5시, 11월 10일은 공연없음)

- 주 최 : 마산시 · 마산연극협회
- 주 관 : 마산국제연극제(MITF) 집행위원회
- 후 원 : 경상남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경남신문 · 경남매일
신경남일보 · KBS창원방송총국 · 마산문화방송

◎ 공연문의: ☎ (0551) 245-0229 · 251-02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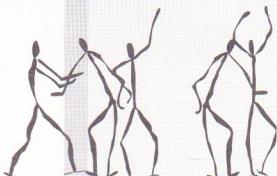
■ 전 작품 무료공연(단, 초대권 지참자에 한함)

- ▶ 초대권 배부처 (공연 당일 공연장 입구에서도 배부함)

마산지역 : 경남대앞/길벗레코드, 남성동/문화문고, 창동/학원사, 학문당, 합성동/육일약국, 주차장앞/재건약국
봉암동/파리바게트, 성안백화점옆/진화당안경점, 중앙동/극단「마산」

창원지역 : 내동상가/김수영약국, 소답시장/끼끼레코드, 정우상가/지구레코드, 중앙오거리/지구레코드
대동백화점앞/새동산약국

The 10th Masan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부산광역시

- 극 단(Name of Company) : 부두연극단
- 작 품(Name of Production) : 물고기의 축제
- 작 가(Author) : 유 미 리
- 연 출(Director) : 이 성 규

연출의 글

잔잔한 일상을 연극적 상징으로 빛어내는 大家로 우리는 안톤-체홉을 떠올린다. 재일교포 "유미리"의 「물고기의 축제」는 체홉과는 다르지만, 일상의 섬세한 부분이 놀라운 삶의 reality를 획득하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

그녀의 자전적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일견 매우 혼란스럽게 삶의 고통을, 부조리를 펼쳐 보여주면서도 '사랑의 힘'이라는 삶의 축복을, 희극적으로 관조하는 格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네 장례식이 소외된 인간들을 큰 삶의 물결속으로, 용서와 화해의 廣場으로 나아가게 하는 亂場이며 祝祭임을 다시 환기시켜 준다.

〈작품마다 다른 저마다의 독특한 형식찾기〉, 〈삶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들여다보기〉.....

「부두 연극단」의 상연목록에 물고기의 축제가 선정된 이유이지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내용으로 관객에게 가닿을지... 열심히 해야 할 뿐이다.

작품줄거리

뿔뿔히 흩어져 살던 가족들은 막내 기훈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노름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능함과 생계를 위해 밤이 되면 카바레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불륜으로 가정은 붕괴되었고, 서로의 갈등과 소외속에서 수년간 가족 상호간에 아무런 유대관계 없이 살아왔다.

어색하게 모여든 가족들은 기훈의 일기를 통해 그의 죽음이 가족의 재회를 위한 계획적인 자살이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외되고 힘겨웠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가족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그리움의 반어적 정서였음을 깨닫게 된다. 기훈의 장례식은 그가 의도한 대로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 화해하는 축제의 장이 된다.



CAST



박정자/김 미 경



김윤석/최 재 민



김유리/손 경 하



김기태/하 현 관



김유미/최 수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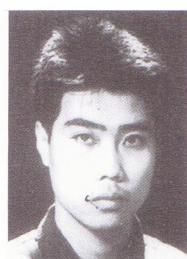
김기훈/오 세 원



한수정/송 지 연



할머니/이 주 영



삼춘/천 세 현



오정달/류 영 운



장의사/장 영 섭



수박장수/박 상 민



조문객1/김 혜 숙



조문객2/류 란 숙



조문객3/신 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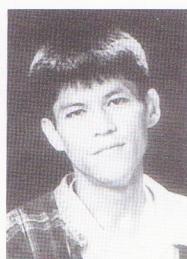
STAFF



연출/이 성 규



기획, 조연출/김 정 숙



무대감독, 조명/류연운



무대장치/하현관



소품/김 혜 숙



분장/엄 지 영

음악 / 이 반 · 무대미술 / 권재연 · 소품 / 신은하